청소년상담연구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8, Vol. 26, No. 2, 365-383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검증*

김지선 이소연†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98명을 대상으로 내현적자기애, 우울증상, 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의 자기보고식 척도를 실시하였다. 순차적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내현적자기애는 우울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우울증상에 간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경험회피 수준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증가된 경험회피는 대인관계문제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우울증상을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내현적자기애 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의 우울증상을 이해하는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장면에서 효과적인 상담개입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주요어 : 내현적자기애, 우울증상, 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 순차적 매개효과

---

* 본 논문은 한국상담심리학회 2018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소연,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부교수, (0431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Tel: 02-2077-7128, E-mail: leesy@sm.ac.kr

서 론

최근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경쟁사회 구조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우월함을 필역해야 하는 사회 풍토가 만연해졌고(서수균, 이현두, 2018) 자신의 가치와 독특성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컨텐츠가 증가하며 '타인에게 보여지는 개인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이문선, 이동훈, 2014). 이에 자기애적인 성격특성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높은 기준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있다(김은혜, 서수균 2013). 특히 이러한 문화와 사회적인 구조에 가장 많이 노출된 대학생 시기의 경우 개인 스스로 나의 존재감과 가치를 확인하고 타인에게 주목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이 아닌 타인의 기준에 맞추거나 외부에서 부과된 기준에 의해 부적응적으로 발달한 자기애의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은(정남운, 2001) 우울, 분노, 적대감과 같은 심리적 질환에 취약해지며 일상생활에 심리적인 불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애성 성격특성은 자기중심적이며 이상적이고 웅대한 자기감을 지니는 성격특성으로 외현적자기애와 내현적자기애로 구분 할 수 있다(박세란, 2004; 이민진, 2012; 이준득, 2005; 조은영, 2011). 외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의 경우에는 적어도 의식수준에서는 자존감이 매우 높고 자신의 성취나 재능, 업적 등을 과시하며 대인관계에서는 지배에 대한 욕구가 높고 친화적 관심이 부족한 특징을 갖는다. 반면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은 내적으로는 자기도취적이고 자기애적인 자기상이 있으나, 자기애적 방어가 흔들리게 되면 쉽게 자기 확신과 주도성의 부족과 같은 취약함이 드러나게 되면서 좌절감, 열등감, 상실감을 경험한다(한수정, 2016). 이에 내현적자기애는 우울한 혹은 소진된 자기애로 지칭될 만큼 우울증상을 흔히 경험하며, 내현적자기애와 우울증상과의 관련성은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곽진영, 하은혜, 2010; 이진숙 ,현명호 2012; Aalsma, Lapsley & Flannery, 2006; Wink, 1991).

초기 성인기에 해당되는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이전 청소년 시기에 경험했던 발달 과제와 또 다른 폭넓고 다양한 발달과업에 당면하게 된다. 이들은 다양한 발달 과업들을 잘 극복해 나가며 내적으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갖게 된다. 실제 국내 정신질환 역학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18-29세의 우울장애 발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증가 비율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우울은 재발률이 높고(Shen, Andrews, & Evans, 2005) 초기 성인기의 우울증상은 성인기 이후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적인 부적응은 개인 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사회의 발전적인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유은영, 윤치근, 양유정, 2012).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 시기에 내현적자기애의 성격특성과 우울증상의 관계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 둘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내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은 내면의 취약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경험회피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 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1996)은 개인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신체 감각, 정서, 사고, 기억 등의 사적 경험을 회피, 억제 또는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경험회피(experiential avoidance)'로 정의하였다. 내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은 자신이 무언가를 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세워놓은 높은 기준과 취약한 자기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정적인 느낌들로부터 회피하는 방식을 주로 선택하게 된다(권석만, 한수정, 2000). 그들은 매우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자기를 경험하게 될 때 상실감,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이 경험회피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례, 2017; 제현채, 김정규, 2014).

한편 자기애적인 성격특성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게 관심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역기능적인 행동특성을 야기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홍서윤, 2014). 외현적자기애와 내현적자기애의 차이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은 대인관계행동이며, 특히 내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에게 대인관계문제는 취약한 측면이며 역기능적인 특징을 갖는다(한수정, 2016). 내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대인반응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정, 2005).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이 수용되고 있는지 혹은 거절당하는지에 과민하며(권석만, 한수정, 2000)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타인이 원하는 것을 따르거나 혹은 아예 관계를 단절 시키는 행동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였다(이민진, 2012). 또한,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의 경우에는 타인의 언행에 쉽게 공격성을 느끼거나 작은 실수에도 수치심을(차혜련, 김종남, 2016) 느끼기 쉬워 대인관계에서 수동적,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반대로 당당하고 외향적이다가도 과민하고 위축되기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인다(한수정, 2016).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은 대인관계에서 많은 역기능적인 문제를 보이며 내현적자기애의 성격특성의 사람들은 대인관계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두드러진 문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문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시사된다. 실제로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행연구들은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배미정, 조한익, 2014; 최지영, 이영순, 2014; Campbell & Baumeister, 2006).

내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은 경험회피로 인해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경험을 증가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된다(Hayes, 1996). 또한 경험회피를 만성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회피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느라 현재 경험들과의 접촉이 감소하게 되며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보다는 상황을 외면하는 소극적인 대처를 하게 된다(이진숙,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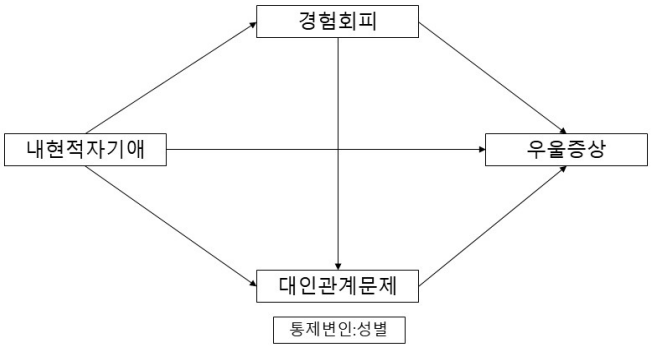
명호, 2012; Kashdan, Barrios, Forsyth, & Steger, 2006) 즉, 원치 않는 사건에 대한 회피는 개인이 적응적인 대처능력을 습득하지 못하게 하며 문제 상황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경험으로 인해 생리적으로 각성되며 부정적인 감정에 더욱 오래 머물게 된다. 실제로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Bjornsson 외(2010)의 연구에서는 경험적 회피가 8-12주 후의 우울증상을 예측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저조한 기분을 수용하지 못하고 회피하려 하려는 시도가 우울증상의 일차 경로가 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Berman, Wheaton, McGrath & Abramowitz, 2010; Kashdan et al., 2006). 또한 최근 국내 연구들에서는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서 경험회피를 다루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강현주, 심은정, 2018; 김은영, 이지은, 2015; 나빛나, 장성숙, 2016; 황현숙, 이지연, 장진이, 2012).

한편 내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의 대인관계문제는 그들의 경험회피 성향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초기 성인기에는 대인관계가 넓어진 만큼 누구나 갈등을 경험하고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개인이 문제를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과 주도성을 습득하게 되면서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현적자기애는 타인에게 자신의 좋은 모습만을 보이려 하며, 거절과 비판받는 상황을 극도로 받아들이려 않는 성향으로 인해 (한수정, 2016)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해결해나갈 필요한 정보, 기술 습득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주변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철수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경험회피가 사회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조영미, 이희경, 2013) 경험회피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정혜진, 2014; 추상엽, 임성문, 2010; 허재홍, 2014).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는 청소년기의 비해서 폭이 넓어지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교류할 대상을 선택하고 그 관계를 유지시켜야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가 요구된다. 이에 초기 성인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독립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발달 과업이 된다(Erikson, 1963).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며, 친밀함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나(조영재, 2012)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고 부적응적인 관계 패턴이 반복될수록 우울증상, 소외, 불안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키며(권석만, 1997; 정혜진, 2014; Sullivan, 1953),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잠식시켜 우울증상을 촉발시킨다(권석만, 한수정, 2000). 대인관계가 불만스럽고 비효과적일 경우 대학생들의 성장, 발달의 방해를 받게 되며 나아가서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권석만, 1995), 심리적 장애의 대부분이 대인관계의 문제로 인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Horowitz, 1996).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하듯 대인관계에서의 갈등과 문제가 우울증상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박경 2003; Blatt & Zuroff, 1992; Dykman & Johll, 1998; Hammen, 2003), 특히 대학생들이 대인관계의 문제를 갖게 되

었을 때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독감은 우울증상, 슬픔, 절망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야기 한다고 보고된다(양민정, 2011).

본 연구에서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이 우울증상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의 순차적 매개효과 경로를 연구문제로 설정한 것은 내현적자기애가 우울증상과 대인관계문제를 흔하게 경험하다는 사실과 대학생 시기는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발달적으로 중요함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 시기의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으로 인해 대인관계문제와 우울증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 개입 가능한 방안을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내현적자기애와 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 우울증상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는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를 매개로 하여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소재의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04명을 대상로 2018년 2월 22일부터 5월 17일 까지 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배부한 404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15부와 성별을 기재 하지 않은 1부를 제외하고 총 389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69명(17.7%), 여자 320명(82.1%)이며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

령은 21.38세(SD = 1.08)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내현적 자기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5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자기애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하위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 2개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으로 명명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 3개는 목표불안정, 과민/최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으로 명명하였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보고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9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현적자기애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정신보건연구원(National Instisute of Mental Health: NIMH)에서 개발한 도구를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 및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우울증상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우울감정, 긍정적 감정, 신체/행동둔화, 대인관계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0=극히드물게, 3=거의 대부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증상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으로 나타났다.

경험회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경험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Hayes 등(2004)이 개발한 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16: AAQ-16를 문현미(2006)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적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16문항으로 내적 사건을 기꺼이 경험하려는 경향을 측정하는

‘기꺼이 경험하기’ 요인과 원치 않는 내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행동하기’ 요인의 2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예를 들면‘우울하거나 불안하면, 나는 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 ‘원치 않는 생각이나 감정이 들면 이를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억제하려고 애쓴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7점 Liekrt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7=항상 그렇다) 평정한다. 문현미(2006)가 보고한 신뢰도는 Cronbach’s α=.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경험회피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6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 & Villasenor(1988)의 대인관계문제(I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를 홍상황 외(2002)가 단축형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대인관계문제 검사 단축형(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 KIIP-SC)을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안은화(2012)의 연구와 같이 Horney의 이론을 적용하여 대인관계문제를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하위요인 중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은 ‘사람들에게 향함’으로,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는 ‘사람들에게 맞섬’으로 냉담, 사회적 억제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척도에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홍상황 외(2002)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4.0와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자료의 정상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둘째, 내현적자기애와 우울증상, 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Process Macro에서 제시한 모형 중 Model 6을 분석법으로 사용하여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ing)을 실시하였다(Shrout & Bolger, 2002). Preacher & Hayes(2008)의 Model 6의 다중매개 분석법은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이 가능하다. 또한 예측변인이 중다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난 후에도 중다변인들 간에 미치는 설명량에 대한 효과 검증이 가능하며 전체 매개효과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중다 매개변인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서영석, 2010). Hayes(2013)의 Process macro는 변인의 문항 전체 합산점수를 사용함에 따라 오는 측정오차를 배제할 수 없고 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으나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 방법으로 전체 매개효과 뿐 아니라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해 주며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공변량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이소영 외, 2014).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6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 결과는 간접효과 추정치가 95% 신뢰구간에서‘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Preacher & Hayes,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통제하고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남 = 1, 여 = 0 으로 더미 코딩하여 모든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래핑 분석에서 성별을 공변량으로 포함시켜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것은, 여러 역학적 연구에서 우울증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2배정도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보건복지부, 2016) 실제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의 우울증상 평균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우울증상 평균이 남성의 우울증상 평균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t = -2.484, p<.01).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성별이 균등하게 표집 되지 못한 현실적인 부분과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하기 위함이었다.

결 과

주요변인 별 기술통계 및 상관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 우울증상, 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존재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내현적자기애는 우울증상(r=.58, p<.01), 경험회피(r=.61, p<.01), 대인관계문제(r=.70, p<.01)와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높을수록 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 우울증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울증상은 경험회피(r=.48, p<.01), 대인관계문제(r=.48, p<.01) 간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r=.50, p<.01). 이는 경험회피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왜도와 첨도를 살펴 다변량 정상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변인들은 절대값이 1만으로 나타나 정상성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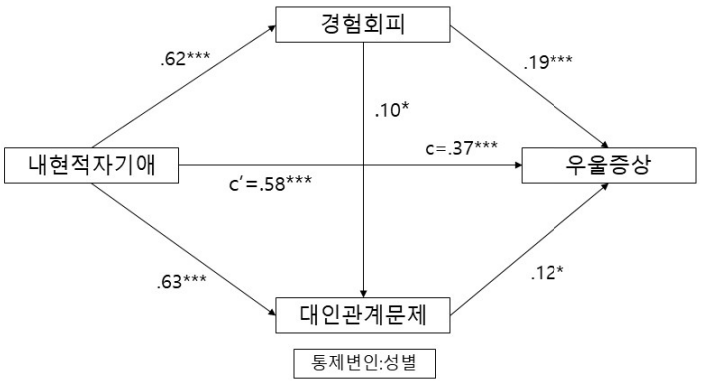
	1. 내현적자기애	2. 우울증상	3. 경험회피	4. 대인관계문제
1. 내현적자기애	-			
2. 우울증상	.58**	-		
3. 경험회피	.61**	.48**	-	
4. 대인관계문제	.70**	.48**	.50**	-
M	2.77	.96	4.03	2.40
SD	.49	.45	.60	.53
왜도	-.17	.37	.01	-.12
첨도	-.31	-.38	.45	-.48

주. * p<.05, ** p<.01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우울증상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의 순차적 대중매개효과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우울증상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Process Macro 프로그램의 Model 6을 사용하여 순차적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 제시 된 연구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내현적자기애는 우울증상에 정적



주. * p< .05, ** p< .01, *** p< .001.
주. c는 매개변인이 있는 모형에서 내현적자기애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총 효과 크기, c′는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에서 내현적자기애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직접효과 크기.

〔그림 2〕 연구모형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576, p<.001). 둘째, 내현적자기애가 경험회피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622, p<.001). 셋째, 내현적자기애(β=.663, p<.001), 경험회피는(β=.103, p<.05)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내현적자기애(β=.365, p<.001), 경험회피(b=.194, p<.001), 대인관계문제(β=.124, p<.05)는 우울증상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내현적자기애, 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회귀모형에서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성별은 우울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41, p>.05).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각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내현적자기애에서 우울증상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통계적으로 직접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b=.329, CI[.21, .44]).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총 간접효과 유의성을 살펴보면 첫째, 내현적자기애가 경험회피를 거쳐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b=.109, CI[.05, .17]). 둘째, 내현적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를 통해 우울증상에 미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b=.074, CI[.01, .14]. 셋째, 내현적자기애가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우울증상으로 가는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통계적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b=. 007, CI[.00, 02]). 마지막으로 본 경로의 총 간접효과는 모든 특정간접효과들의 합계로서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 정적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b=.191, CI[.10, .29]). 본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결과는 내현적자기애가 우울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내현적자기애가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우울증상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표 2〉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연구모형 경로	효과 계수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직접효과) 내현적자기애 -> 우울증상	.329	.058	.21	.44
총 간접효과	.191	.047	.10	.29
총 효과	.521	.038	.44	.60
내현적자기애 -> 경험회피 -> 우울증상	.109	.031	.05	.17
내현적자기애 -> 대인관계문제 -> 우울증상	.074	.034	.00	.14
내현적자기애 -> 경험회피 -> 대인관계문제 -> 우울증상	.007	.004	.00	.02

주. 성별을 통제한 결과임.

주. Bootstrap표본 수 = 10,000

미쳤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389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우울증상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내현적자기애가 우울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우울증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 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 우울증상이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과업들을 주도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하는 대학생 시기의 경우에는 취약한 자기감을 갖는 내현적자기애의 성격특성은 도전과제에서 실패감, 좌절감, 열등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울증상이 높아질 수 있겠다. 내현적자기애의 경험회피 사용 저변에 있는 정서를 이해하고 상담 장면에서는 수용적이고 무비판적인 태도를 전달하여 자신의 불완전함을 자각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내현적자기애는 대인관계문제와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내현적자기애 성향과 대인관계문제를 설명하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최민경, 김종남, 2010; 홍서윤, 2014),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의 내담자의 경우 상담 장면에서 그들의 대인관계 어려움이 중요한 요인임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매개변인들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를 순차적으로 거쳐 우울증상에 이르는 간접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만을 거쳐서 우울증상으로 가는 간접경로와(내현적자기애->대인관계문제->우울증상) 경험회피만을 거쳐서 우울증상으로 가는 간접경로(내현적자기애-> 경험회피->우울증상)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경험회피가 대인관계문제에 선행함을 밝힘으로써 경험회피를 경감시키는 치료적인 개입의 근거를 입증하고자 순차적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결과에 대해 유추해보면,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은 부적절하고 열등한 자기를 보상하려는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치심, 굴욕감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강선희, 정남운, 2002) 부정적인 사건을 확인하고 다루기보다는 이를 회피한다. 그러나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심도 있는 의사소통이 요구되는데(김가을, 권정혜, 양은주, 2013) 반복적인 경험회피의 사용은 일상에서의 대인관계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기 어렵고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사고와 감정 또한 인식하기 어렵게 하여 갈등에 오래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에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예민한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의 경우 타인에게 과하게 순응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억

압하다가 관계를 단절시키는 패턴을 보이며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와 인정으로 자기애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의 사람들의 대인관계에서의 지속적인 실패는 내적으로 취약한 자기를 경험하게 하는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Fontana, Dowds, Marcus & Eisenstadt, 1980), 더욱이 대인관계가 복잡해지고 사회적인 적응에 중요한 발달과업이 되는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문제는 우울증상을 유발하는 강한 변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는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보고하는 대인관계상황에 대해 회피 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 방법과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하는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경험회피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포함하는 경로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는 대인관계문제가 경험회피를 유발시킨 다는 몇몇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정혜진, 2014; 추상엽, 임성문, 2010)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의 상보적인 관계를 확인하고자 함이었다. 그 결과 내현적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와 경험회피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우울증상에 이르는 간접 경로(내현적자기애->대인관계문제->경험회피->우울증상) 역시 성별을 통제하고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받아 우울증상에 이르게 될 때 매개변인인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가 일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기 보다 양방향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혼하게 경험하는 과정에서 위축되어 취약한 자기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더욱 회피적인 성향을 띄게 되면서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고 예상된다. 즉, 대인관계에서 실패한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의 사람들의 경우 자신들의 취약한 자기애를 방어하고자 더욱 회피적인 성향을 보이며 우을증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내현적자기애는 일종의 성격적 구조이며 특히나 성인기의 성격적 구조는 단기적인 개입으로는 변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이차적으로 문제인 경험회피, 대인관계능력은 고착된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다루어주는 것은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 현실적인 개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Hayes, Wilson, Gifford, Follette와 Strosahl(1996)은 심리적 고통의 원인인 경험회피의 해독제로서 심리적 수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추미례, 이영순, 2014). 부정적인 정서와 인지를 수용하도록 돕는 수용행동전념치료는(ACT) 부정적인 사건과 감정을 회피나 과장 없이 수용하도록 하여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서와 연합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목표를 갖는다. 이러한 상담접근 방법은 경험회피를 주로 사용하는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자신의 감정과 더불어 타인의 입장과 문제를 파악하도록 도

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담자가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이 경험회피를 주로 사용하게 하는 정서적인 기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의 경우 내적으로 거부민감성이 높아 사회적인 상황에서 회피적인 반응이 높고 대인관계 갈등을 피하기 위해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에 상담 장면에서는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의 내담자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염두하고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제 하는 회피적인 태도를 줄이도록 돕는 치료적 태도 및 개입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는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내현적자기애의 경험회피 수준과 대인관계문제가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힘으로써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내현적자기애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의 성격특성의 경우 어려움이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감정을 회피함으로써 대인관계문제가 유발되며 이들의 대인관계문제는 우울증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내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졌다. 이에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이 대인관계문제로 인해 우울증상을 경험할 때 경험회피라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경향성을 다루는 것이 대인관계문제를 증가·경감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밝힘으로써 경험회피의 치료적 개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후기 성인기의 우울증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초기 성인기의 우울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찾아내었고, 특히 대인관계 형성이 중요한 발달단계인 대학생 시기의 우울증상과 대인관계문제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검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만 이용하여 응답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내현적 자기애성격 특성과 같이 회피성향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응답자의 반응이 왜곡, 축소 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적인 면담이나 실험 연구 방식이 제안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인 외의 다른 정서적, 인지적인 특성들도 고려되어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내현적자기애의 복잡한 심리기제들을 다양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성별이 균등하게 포집되지 못하였다. 특히 우울증상의 경우 성별의 차이가 보고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균등한 성별의 표집을 통해 더욱 타당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강은정 (2005). 자기애와 내현적 대인반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현주, 심은정 (2018). 긍정적 재초점 및 긍정적 재평가와 대학생 우울의 관계에서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4), 125-145.
곽진영, 하은혜 (2010). 청소년의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315-331.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30(1), 38-63.
권석만 (1997).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심리학. 서울: 학지사.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627-642.
김가을, 권정혜, 양은주 (2013). 대인관계갈등에서의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2), 279-294.
김은영, 이지은 (2015). 대학생들의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3), 345-358.
김은혜, 서수균 (2013).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적대감 사이에서 부적응적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533-548.
나빛나, 장성숙 (2016). 고등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우울 관계에서 수치심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8, 1-23.
문현미 (2006). 심리적 수용 촉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수용-전념 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배미정, 조한익 (2014). 내현적 자기애 성향, 자존감,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련성 연구. 상담학연구, 15(6), 2417-2435.
박경 (2003).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가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581-593.
박세란 (2004). 외현적 ·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2011). 201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학술연구 용역사업보고서.
보건복지부 (2016). 2018. 05. 13.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http://www.mohw.go.kr/에서 검색.
서수균, 이현두 (2018). 자기애성향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9(1), 85-101.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안은화 (2012). 대학생의 분리-개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

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민정 (2011). 대학생의 애착과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은영, 윤치근, 양유정 (2012).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1), 274-283.

이문선, 이동훈 (2014).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973-992.

이민진 (2012).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대인관계 양상: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영, 조현주, 권정혜, 이종선 (2014). 패배감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인식과 속박감의 순차중다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 285-303.

이정례 (2017).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준득 (2005).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숙, 현명호 (2012). 내현적 자기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소극적 대처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4), 161-181.

제현채, 김정규 (2014).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3), 477-489.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 (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정혜진 (2014).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영미, 이희경 (2013).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227-1245.

조영재 (2012). 남자 전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영 (2011).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분노특성과 전위공격성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혜련, 김종남 (2016).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44-244.

최민경, 김종남 (2010). 청소년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47-763.

최지영, 이영순 (2014).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분노표현양식 및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1(1), 77-95.

추미례, 이영순 (2014).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27-43.

추상엽, 임성문 (2010).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2), 309-332.

한수정 (2016).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허재홍 (2008). 사회불안 발생과정에 자기효능감과 체험회피가 미치는 영향-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73-1189.

허재홍 (2014). 정서억제가 주관적 안녕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경험회피의 중재효과. 상담학연구, 15(2), 595-608.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 (KIIP-SC) 구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923-940.

홍서윤. (2014).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2), 73-95.

황현숙, 이지연, 장진이 (2012). 중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0(2), 495-515.

Aalsma, M. C., Lapsley, D. K., & Flannery, D. J. (2006). Personal fables, narcissism, and adolescent adjustment. *Psychology in the Schools*, *43*(4), 481-49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SM-IV® Sourcebook* (Vol. 1). American Psychiatric Pub.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Berman, N. C., Wheaton, M. G., Mc Grath, P., & Abramowitz, J. S. (2010). Predicting anxiety: The role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anxiety sensitivi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4*(1), 109-113.

Bjornsson, A., Carey, G., Hauser, M., Karris, A., Kaufmann, V., Sheets, E., & Craighead, W. E. (2010). The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rumination on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3*(4), 389-401.

Blatt, S. J., & Zuroff, D. C. (1992). Interpersonal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Two prototypes for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5), 527-562.

Campbell, W. K., & Baumeister, R. F. (2006).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Practitioner's guide to evidence-based psychotherapy Springer, Boston, MA. 423-431

Dykman, B. M., & Johll, M. (1998). Dysfunctional attitude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ve symptoms: A 14-week longitudinal stud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2*(4), 337-352.

Erikson, E. H. (Ed.). (1963) *Youth: Change and challenge.* Basic books.

Fontana, A. F., Dowds, B. N., Marcus, J. L., & Eisenstadt, R. (1980). Support and stress: Opposite sides of the same coin. *In 88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Montreal, Quebec, Canada.

Hammen, C. (2003). Interpersonal stress and depression in wome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4*(1), 49-57.

Hayes, Andrew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 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Hayes, S. C., Strosahl, K., Wilson, K. G., Bissett, R. T., Pistorello, J., Toarmino, D., & Stewart, S. H. (2004). Measuring experiential avoidance: A preliminary test of a working model. *The Psychological Record, 54*(4), 553-578.

Hayes, S. C., Wilson, K. G., Gifford, E. V., Follette, V. M., & Strosahl, K. (1996). Experiential avoidance and behavioral disorders: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6), 1152.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

Horowitz, L. M. (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2), 283-300.

Kashdan, T. B., Barrios, V., Forsyth, J. P., & Steger, M. F. (2006). Experiential avoidance as a generalize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Comparisons with coping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9), 1301-1320.

Aalsma, M. C., Lapsley, D. K., & Flannery, D. J. (2006). Personal fables, narcissism, and adolescent adjustment. *Psychology in the Schools, 43*(4), 481-491.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Shen, Z., Andrews, J. G., & Evans, B. L. (2005). Adaptive resource allocation in multiuser OFDM systems with proportional rate constraints. *IEEE Transactions on Wireless*

Communications, 4(6), 2726-2737.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chological Methods, 7*(4), 422-445.

Sullivan, H. S. (1953). *The collected works of Harry Stack Sullivan, Vol. 1: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

[원고접수일: 2018. 08. 31. / 수정원고접수일: 2018. 11. 04. / 게재결정일: 2018. 11. 08.]

청소년상담연구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8, Vol. 26, No. 2, 365-383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Problems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Kim, Jee-Sun Lee, So-Yea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interpersonal problem in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on the depress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For this, the self-report scale of covert narcissism, depression, experiential avoidance, and interpersonal problem was conducted targeting total 398 university students. In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ping using the Process Macro developed by Preacher and Hayes(2008)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the covert narcissism had direct effects on the depression while it also indirectly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depression by sequentially passing through the experiential avoidance and interpersonal problem. It means that the covert narcissism increases the level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the increased experiential avoidance increases the interpersonal problem, which is eventually led to the increase of depression. This study provided the data for understanding the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with covert narcissism, and also suggested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effective counseling intervention in the scene of counseling.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depression, experiential avoidance, interpersonal problem, sequential mediating effects